



The Hope Issue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2호 2016.03.30.

4·13 총선,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 -

이관후 | 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 (rainer2134@hanmail.net)

황현숙 | 사회의제팀 위촉연구원 (sook@makehope.org)

I 요약

-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좋은 대의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유권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시민은 유권자와 어떻게 다른가?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참여에 그치지만, 시민은 좋은 대표를 뽑는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좋은 대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좋은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투표 이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주어져야 한다. 물론 그것은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말하는 정치,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하다.
-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연구, 개발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이다.
-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I 키워드 민주주의, 시민, 토론, 노란테이블

1.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I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좋은 대표, 좋은 정치의 기준을 정하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 나쁜 정치를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다른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다음선거에서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선거는 의미가 있을까?
-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이다.
- 많은 대의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선거의 중요한 의미를 시민 교육적 차원에서 찾는다. 선거 캠페인과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좋은 후보를 골라내고 기준을 정해가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선거란 대의민주주의를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 축소·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다.

I 왜 유권자가 아니라 시민인가?

- 공급자인 정당과 정치권이 좋은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한계는 명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권자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이 좋은 대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좋은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토의를 통해, 시민이 말하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투표하는 기제로 전략한 '시민'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그 형식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다. 이 토의는 공적사안에 대한 아주 가벼운 대화에서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적인 대화까지 그 범주가 매우 넓다. 토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필요한 대중들의 발화형식이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항상적으로 시민교육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 토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참여와 합리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

I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나쁜 정치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쉬운 일이다.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면 소홀하다고 욕할 수 있고, 지역구만 챙기면 국정에 관심 없다고 욕할 수 있다. 현장에 가면 전시성이라 비난하고, 현장에 안 가면 민생 안 챙긴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인은 다 나쁘다고 비난하고, 시민들이 정치의 관객으로 물러날수록 그들의 힘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 투표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선거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했는지 떠올려보자. 정당, 출신 지역, 학교, 외모, 동네 어른들이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투표해서 뽑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었나?
- 물갈이를 하면 좋아진다? 사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현역의원의 62%가 교체되었다. 초선의원은 148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렇게 물갈이를 해서 국회가 나아지고 있는가. 그 물이 그 물이라면 물갈이의 의미가 있을까. 새 물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시민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항상 그 물이 그 물이다.
-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물갈이도, 유명 인사의 깜짝 공천도, 국민 공천도 모두 반짝하는 선거용 이벤트일 뿐이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다.

2. 노란테이블: 토론으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희망

I 열린 토론의 장, 노란테이블

-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주인공인 자리이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목소리든 존중한다. 희망제작소는 2014년 7월,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 사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 토론하고 그 실현 방법을 모색하는 ‘노란테이블’ 토론캠페인을 진행했다. 2014년 7월 19일, 서울 종로의 수운회관에 300명의 시민이 모였다. 나이, 직업, 성별, 정치색도 모두 달랐지만, 시민이 직접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계속되었다. (관련 기사: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I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 첫 번째 노란테이블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매우 높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기획했다.

- 2015년 가을,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가 열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2015년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총 185명이 신청했다. 시민토론회의 전후로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 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은?

- 시민토론회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월 24일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7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는데, 그동안 정치나 사회이슈와 관련된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은 분들이 절반이나 됐다.
- 11월 7일 서울 종로의 수운회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았다. 모의 투표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한 장의 포스터에 그려냈다. 시민토론회의 2부는 모두 토론 결과 공유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정당의 신진 정치인 및 정치평론가와 함께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 참가자들은 국회의원들의 문제로 소통 부족,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근시안적 정책 등을 꼽았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는 소통 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상생, 전문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관련 글: [“희망제작소가 묻고, 시민이 답했다”](#)) 이렇게 모아낸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반영해 12개의 모듬이 그려낸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30대 후반의 여성, 엄마, 주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관련 글: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바로, 당신”](#))

■ 좋은 정치를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

- 노란테이블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정치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었다.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 더 많은 시민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 집에서, 학교에서, 카페에서 노란테이블을 열어보자. 100인 토론회는 끝났지만,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여기 제시하는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

노란테이블 토론 진행

노란테이블 토론 가이드를 따라 시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을 세워보자. 노란테이블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을 지향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연구, 개발했다. 토론은 ‘소개하기 - 발견하기 - 논의하기 - 상상하기 - 공유하기’ 5단계로 진행된다(각 단계별 카드 활용 및 진행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



소개하기



발견하기



논의하기



상상하기



공유하기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은 3~8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토론카드를 소개하고 논의를 진행할 사회자와 토론 결과 정리 또는 공유를 위한 기록자도 필요하다. 소규모 토론이라면 참가자 중에서 사회자와 기록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사회자의 역할

- 참가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 및 시간의 균등한 배분에 유의한다.
- 참가자들이 스스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발언을 독려한다.
-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중재한다.

발언자(토론자)의 역할

- 노란테이블은 모든 참가자가 발언을 한다. 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한다.
- 다른 토론자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거나 질문을 할 때는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먼저 얻는다.
- 다른 토론자들의 발언을 잘 듣고 토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세로 참여한다.

기록자의 역할

- 발언자의 선택 키워드와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다. 모듈별 논의 내용과 결과를 다른 모듈 참가자들과 공유하는데 사용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문서공유 프로그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 접착식 메모지 등을 사용해 모듈별 발표 자료를 만들어도 된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한다.
- 희망제작소는 100인 토론회를 위해 웹 기반의 기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모듈의 기록자는 토론자가 선택한 키워드 선택 결과와 발언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토론회 현장에서 키워드 집계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진행 시간

- 8명이 한 모듈을 이뤄 토론을 진행한다면 소개하기부터 상상하기까지 실질적인 토론 시간은 총 120분이 소요된다. 참여 인원 에 따라 전체 진행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진행 예시

진행순서	발언	시간	토론 진행	응답
소개하기	모두	15분	'투표'하면 떠오르는 나의 이야기	자기소개와 나의 투표 이야기
발견하기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희망자	25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정치, 정치인의 문제 논의	발견하기 카드 1-2장 선택하고 이유 설명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추가 의견	선택 키워드(문제) 사이의 연관성 찾기
논의하기	모두	40분	모의투표	투표의 기준, 지지후보 결정 기준 말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	상호토론으로 모듈별 좋은 국회의원 기준선정
공유하기/ 휴식				
상상하기	모두, 자유롭게	40분	선택한 기준을 반영해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 그리기 시민의 요구 작성	상상하기를 통해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모습 그려보기 좋은 정치를 위한 변화와 요구 작성
공유하기	모듈 발표자	40분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상상과 요구를 확인	모듈별 토론 결과 공유
	자유롭게		소감 나누기	구체적으로 토론 참가 전후의 생각, 느낌 말하기

토론툴킷 구성

토론카드

- 문제발견 카드 24장
(키워드 카드 16장+빈 카드 8장)
- 기준발견 카드 35장
(키워드 카드 27장+빈 카드 8장)
- 요구카드 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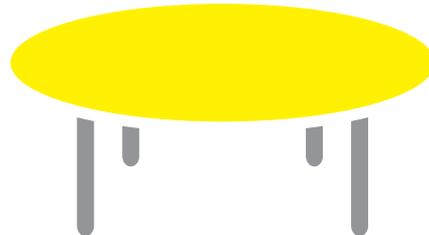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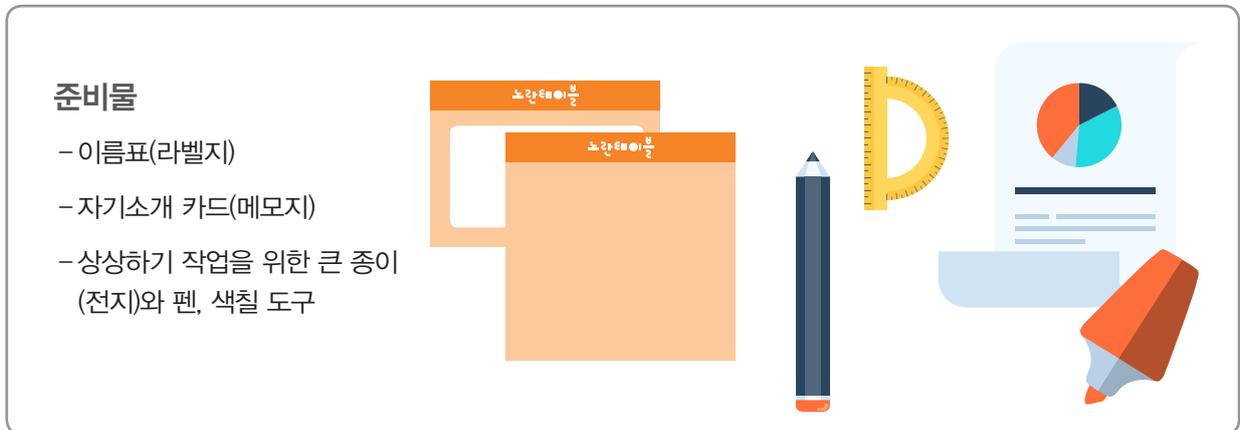
- 토론 가이드
- 가상 공보물



노란테이블보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집, 교실, 공원 어디서든 노란테이블보를 펼치고 토론해 보자.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토론툴킷에는 토론카드와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자를 위한 토론 가이드는 지금 읽고 있는 자료이다. 준비물인 이름표와 자기소개 카드는 참가자의 수만큼, 상상하기 작업을 위한 종이는 모둠 수만큼 준비한다.

토론툴킷이 없어도 노란테이블을 열 수 있다. 카드 대신 접착식 메모지, 노란테이블보 대신 노란 종이를 사용한다. 토론카드와 참고자료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해보자.

토론카드 활용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스토리

- 활동 목적**
-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토론의 규칙을 인식한다.
 - 사회자는 토론 참가자들의 성향을 파악한다.
- 진행 순서**
- ① 인사를 나누고 이름표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부착한다.
 - ② 투표하면 생각나는 한 단어를 종이에 쓰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투표 이야기를 나눈다.
 - ③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은 1분(~1분 30초)으로 제한한다.
- 주의사항**
- 사회자는 전체적인 토론 진행 순서와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한다.
 - 발언 시간 제약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한 규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키워드는 추상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물 혹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10대 참가자가 있다면,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뽑고 싶은 국회의원 또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투표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툴킷활용**
- 이름표(라벨지), 자기소개 카드(메모지), 필기구



사회자 진행 발언 예

<인사>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입니다. 좋은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알아야겠지요.

<이름표 붙이기>

먼저 여기 있는 스티커에 이름을 써서 왼쪽 가슴에 잘 보이게 붙여 주세요.

<문제 설명>

오늘 자리가 좋은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 자리인 만큼 자기소개도 독특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투표'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생각하고 적어볼 시간을 줍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투표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자기소개는 1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며 꼭 지켜주셔야 할 점은 발언 시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한 원칙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1분을 지켜 자기소개 합니다).

2. 발견하기: 무엇이 문제인가?

- 활동 목적**
-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 진행 순서**
- ①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 ② 선택한 발견하기 카드 또는 빈 카드에 직접 적은 문제를 중심으로 1분 30초 씩 발언 한다.
 - ③ 2차 발언은 앞에서 선택된 카드를 중심으로 문제 간의 관련성이나 유사점,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 주의사항**
- 문제발견 카드의 내용은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보다 국회의원, 국회에 대한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적 의견을 반영해 구성했다.
 -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1인당 발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2차 발언에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주의한다.
- 툴킷활용**
- 문제발견 카드, 필기구



사회자 진행 발언 예

<문제 설명>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국 정치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안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발견하기 시간에는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준비한 카드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노란색 카드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들, 문제점이 적혀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선 카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발언>

우선은 한 분씩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밝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이 카드들 중에 적혀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해 이야기하시고요. 혹시 자신이 생각한 카드를 다른 분이 먼저 가져가셨거나, 여기 없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으시다면 빈 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고 제 왼쪽 분부터 돌아가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여러 장 고르셔도 되지만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 분당 발언시간은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2차 발언>

(모두가 1회씩 발언한 다음 이야기가 나왔던 키워드만 테이블에 남깁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국회의원의 문제로 이런 키워드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문제들 사이에는 혹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점들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는 않을 테니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이야기해주세요.

3. 논의하기: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활동 목적

- 모의투표와 좋은 국회의원 기준 찾기를 통해 나의 투표기준을 돌아본다.
- 다양한 의견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설득을 통해 합의된 기준을 마련한다.
- 선택의 결과가 발견하기 단계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본다.

진행 순서

- ① 만일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한다. 발견하기 카드를 활용해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본다.
- ② 투표는 거수로 진행한다. 발견하기 카드를 내놓고, 기준 선택의 이유를 1분 30초씩 설명한다.
- ③ 모두의 의견을 듣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다섯 가지를 정한다.

주의사항

- 모의투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표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상의 후보들은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 진행자는 지지후보의 결정 기준, 투표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툴킷활용

- 가상공보물, 기준발견 카드, 필기구



사회자 진행 발언 예

〈문제 설명〉

이번에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표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찾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대표의 기준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보물을 꺼내 나눠준다)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에선 가상의 국회의원 후보자 4명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고 생각하고 후보들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생각해 주세요. (논의하기 카드를 늘어놓으며) 특히 어떤 기준으로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혹은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사람들이 투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에 대한 키워드가 적혀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기준이 이 카드에 있다면 골라서 이야기 해 주세요. 역시 키워드가 없다면 빈 카드에 적으셔도 됩니다. 카드는 한 분당 최대 두 장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투표〉

지금부터 5분간 자료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모의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라, 현실에 있을법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5분 후) 다 읽어 보셨나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 투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차 발언〉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이유로 지지후보를 결정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2차 발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나온 키워드만 테이블에 놓고 나머지는 정리한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이런 기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들 중에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기준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 다섯 가지만이라도 가진 사람을 뽑아보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혹은 이걸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제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키워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상상하기: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 활동 목적**
-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본다.
- 진행 순서**
- ① 발표자와 기록자를 정한다.
 - ② 논의하기 결과인 5가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 (후보의) 상을 그려본다.
 - ③ ‘우리의 요구’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 또는 정치권에 바라는 점들을 적는다.
- 주의사항**
- 자유롭게 토론하되, 소수의 토론자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논의가 잘 진전되지 않더라도 사회자가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각자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어보고 적은 내용을 모아 확인하며 합의점을 찾아간다.
- 툴킷활용**
- 요구카드, 큰 종이, 필기구, 색칠도구



사회자 진행 발언 예

〈문제 설명〉

우리가 찾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를 대표해줄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순서입니다. (준비된 종이를 테이블에 펼치고) 자 여기 아직 백지 상태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선택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반영해서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지금까지는 열띤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이 시간은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발표자, 기록자 지정〉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종이에 우리가 합의한 의견을 기록해 주실 기록자와 마지막 시간에 결과를 발표할 발표자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상하기〉

여기 빈칸에 먼저 우리가 정한 기준 다섯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기준을 정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프로필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일까요?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요구하기〉

(상상하기를 마치고 진행합니다.) 참가자들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시면서, 좋은 대표, 좋은 정치를 위해 필요한 변화,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짧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5. 공유하기

- 활동 목적** •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우리의 상상과 요구를 확인한다.
- 진행 순서**
- ① 발표하기, 논의하기 결과를 간략하게 공유한다. 상상하기를 통해 그려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소개한다.
 - ② 전체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이 작성한 요구, 토론 참가 소감을 들어본다.
 - ③ 우리의 요구를 적은 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고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1000action)에 공유한다.



사회자 진행 발언 예

<공유하기>

오늘 토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하기의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의 발표자께서는 3분 정도로 발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번 테이블부터 하겠습니다.

<모둠별 공유, 소감 나누기>

오늘 노란테이블을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으셨나요? 좋은 대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한 요구 내용과 오늘 토론의 참가 소감을 한분씩 들어보도록 하지요.

<마무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 좋은 정치에 대한 요구를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이야기가 모두 우리 사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좋은 대표가 누구인지 함께 토론해보는 것이 좋은 정치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질까요?
시민들이 직접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정의하고
공감하면서 널리 퍼트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토론 결과를 희망제작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입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노란테이블 토론의 장을 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1000action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이너스쿨
SDS
퇴근후
Let's
HMC
인생이모자자질센터
Social Innovation
Camp 36

UP
무한에교육
CO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리얼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지역공동체
모금전문가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오픈포
호혜와 연대
디자인
재발견
서로의
재구성

모 good
모금전문가
good fund raiser
1004클럽
커뮤니티
SOS
사회적
기부
인생설계
아카데미
therefore I am
HOPE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집단지성프로젝트
김치찌개데이
장우변화
에코라이프, 나눌
1004클럽
희망탐사대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활동
good fund raiser 호혜와 연대

꿈
희망제작소가
소셜미디어인생프로젝트36
농촌마을명함
데이
문드라운
시민문화예술을
아름답게
HOPE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커뮤니티
매칭
지역공동체
U3A서울
청년진로교육

공명
리더
감사의식탁
social
innovation
나눔
희망한다
시민문화
예술활동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활동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활동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사회적기업인업포럼 도시재생
마을이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서울사회적경제이디아네트워크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윌키투크
@서울
공유
경제
기업가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생애설계
아카데미
프로젝트
확립ICT

천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시청
학교
학교
학교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The Young Foundation 2차원의 재발견
적정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아시아, 사회혁신
아워즈

HOPE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업
두번에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기업가
메니페스토
기업가
이상해요.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탐사대
김치찌개데이
확립ICT
강산에
만들기
NGO
귀중귀촌
아카데미
크라우드펀딩
다자원의재발견
서울의재구성
좋은
서울민들
기
대학상
공공디자인캠프

HOPE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업
두번에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기업가
메니페스토
기업가
이상해요.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탐사대
김치찌개데이
확립ICT
강산에
만들기
NGO
귀중귀촌
아카데미
크라우드펀딩
다자원의재발견
서울의재구성
좋은
서울민들
기
대학상
공공디자인캠프

천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시청
학교
학교
학교

HOPE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기업
두번에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기업가
메니페스토
기업가
이상해요.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탐사대
김치찌개데이
확립ICT
강산에
만들기
NGO
귀중귀촌
아카데미
크라우드펀딩
다자원의재발견
서울의재구성
좋은
서울민들
기
대학상
공공디자인캠프

천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시청
학교
학교
학교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